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 엇갈려

광주시장 출마자들
市 현안 공약·해법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정당·후보 간 정책·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후보들의 공약에는 광주·전남지역 미래 청사진이 담겨 있고, 주요 지역 현안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자의 공약과 해법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도시공원일몰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광주의 중요 교통정책과 도심의 ‘큰 그림’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점에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자들은 다양한 의견과 해법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표심을 두드리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엇갈려=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는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업의 원점 검토를 주장하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들은 대부분 충분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론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제가 꿈꾸는 광주는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이는 200만 이상의

어등산 개발 “재추진” “유보” “중단” 후보마다 달라
도시공원 조성 “시설 최소화 공공성 확대” 의견 비슷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조금더 추진하기보다는 속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합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도 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후보는 “지선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 대한 접근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계열 정당 후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광주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잘못된 전체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1400억원의 운영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2호선에 필요한 2조579억원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청년일자리위원회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민호 후보도 “건설을 반대한다”면서 “대신,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천연가스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등산 개발과 보존 의견 ‘팽팽’=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광주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도 “상업시설을 최소화하고, 숙박시설을 늘리는 등 광주시의 최종안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골프장 건설 이외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규명하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협상 원칙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윤민호 후보도 “개발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개발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공원, 공공성 확보가 핵심=광주시장 후보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우선 국비 지원 등 가급적 많은 재원을 확보해 꼭 필요한 공원 부지는 매입해야 하고, 미 공원 시설 부분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도 “정부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고, 국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도시 공원을 민

간에 매매하는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윤민호 후보도 “도시공원을 민간 개발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지방선거 후보등록

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과 교육감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의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수인번호 716 이명박

구속 62일만에 첫 재판 출석 ... 무죄 주장



뇌물수수과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는 ‘716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연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삼성 뇌물수수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경제인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등이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도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적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밝게 웃는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단독 회담에서 대화하다 밝게 웃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차질 없이 진행”

한미정상회담, 북 비핵화 뒤 체제불안 해소 방안 논의
문대통령 ‘남북 핫라인’ 가동 남북관계 정상화 나설 듯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단독 및 확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 실질적·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

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중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 수석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아 니다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간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라 24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남북 핫라인’을 가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최근 꼬였던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앙상블 디토 DITTO

평주일보 창시67주년

광주일보 창시 67주년을 맞아 스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 공연을 오는 6월 18일에 개최합니다. 관객들을 찾아가는 ‘앙상블 디토 - Dynamic DITTO’는 디토가 공간과 절음을 모토로 2009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2018 디토 페스티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2015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일인 2위를 수상한 대만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지연형, 2014 루빈슈타인 콩쿠르 은메달 수상자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아시아 최초의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1위 수상자 알리스톤 폰테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플루티스트 김한이 참여해 브람스의 ‘피아노4중주 2번’ 등을 들려줍니다. 광주일보 독자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비올라: 콘트라스트
- 소스타인비치: 피아노 삼중주 2번 e단조, 작품 67
-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2번 A장조, 작품 26



(C)Sangwook Lee

2018. 6. 18 [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티켓 R세 88,000원 | S세 66,000원 | A세 33,000원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 ticketmaru.co.kr 문의 062-220-0541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5·18때 보안대 지키러 시민 희생 ▶6면
이명기가 뛰면 KIA는 난다 ▶20면